



‘예술가 와인의 만남, 박선기 작가와의 아트레이블 시리즈’

## 미켈레 끼아를로 바롤로 DOCG 아트레이블

MICHELE CHIARLO BAROLO DOCG ART LABEL

|         |   |          |         |
|---------|---|----------|---------|
| 지역      | 이탈리아 > 피에몬테 > 바롤로   |          |         |
| 포도품종    | 네비올로 100%   |          |         |
| 알코올     | 14%   | 용량       | 750ml   |
| 등급      | DOCG  | 시음 적정 온도 | 17-18°C |
| 테이스팅 노트 | 붉은 과실, 말린 허브, 향신료 등의 복합적인 아로마와 섬세한 벨벳 같은 풍부한 탄닌감을 자랑하는 레드 와인으로 우아하고 화려한 전통적 스타일의 바롤로이다. |          |         |
| 페어링 TIP | 붉은육류/밀가루음식(피자,파스타외)   |          |         |



### 제품설명



피에몬테의 예술가 '미켈레 끼아를로'와 독특하고 매혹적인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박선기' 작가와의 만남으로 탄생한 와인이다. 자연의 순환적 의미를 작품에 담고 있으며 불, 에너지의 시작과 끝이 이어지는 사이클을 표현하고 있다. 주로 나무를 태운 숯을 공중에 매달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바롤로에는 박선기 작가의 '마이애미' 드로잉이 표현되었다. '미켈레 끼아를로 바롤로 DOCG 아트레이블'은 미켈레 끼아를로에서 한국을 위해 특별히 선보인 와인으로 투명한 색감을 가졌지만 구조감이 뚜렷한 진한 탄닌감을 가지고 있다. 네비올로 품종의 파워풀한 탄닌과 질감이 병 숙성을 거치면서 섬세한 질감의 탄닌으로 변화되어, '피에몬테 와인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바롤로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와이너리



1950년대부터 포도밭을 일구고 와인을 양조해 온 미켈레 끼아를로는 가야, 안티노리와 같은 그란디 마르끼의 주요 일원이다. 처음으로 이탈리아 와인을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했던 1세대 수출 와이너리로서, 현재까지도 피에몬테 No.1 수출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롤로, 바르베레스코, 바르베라 다스띠를 통틀어 유일하게 이들의 탑 싱글 빈야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부띠고 와이너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과 가격 대비 최고의 품질로 와인 애호가들의 니즈와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프리미엄 퀄리티의 피에몬테 와인을 생산하겠다는 일념 하에 이탈리아 DOC 법이 생기기도 이전에 자체적으로 현재 법규 수준 이상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시행해왔으며,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현대적인 양조 기술을 도입한 생산자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